

# 시민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른 정부신뢰: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배 정 현\*\*

|                    |                   |
|--------------------|-------------------|
| 〈目 次〉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정부신뢰와 사회문화적 설명 | V. 분석결과에 논의 및 시사점 |
| III. 연구설계          |                   |

## 〈요 약〉

본 논문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신뢰와 시민의 가치관 또는 성향간의 관계를 분석해 정부신뢰의 중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AsiaBarometer survey 자료를 통해 행정부신뢰와 정부제도신뢰를 다수준 분석모형(위계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문화적 요인 중 전통주의, 후기물질주의, 주관적 안녕감이 정부신뢰(행정부신뢰, 정부제도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수준의 사회신뢰가 정부신뢰와의 관계에서 국가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시민은 전통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닐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주제어: 정부신뢰, 사회문화론, 가치관, 다수준 분석, 아시아】

## I. 서론

현대사회는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신뢰의 적자 위기를 맞고 있다. 시민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국가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 신뢰관계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감시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사회적 협동을 감소시키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결속감, 사회구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3A2033282).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jhbae75@gmail.com)

논문접수일(2013.7.25), 수정일(2013.9.3), 게재확정일(2013.9.10)

성원들의 헌신 및 만족 또는 정보의 원활한 유통, 불확실성의 감소 등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신뢰의 감소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된다면 사회구성원 개인이나 조직, 나아가 국가의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신뢰 감소현상을 사회의 위기로 간주하는 많은 학자들은 신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왔으며 신뢰 대상을 사람에서부터 조직 나아가 국가기관으로 넓혀 대인신뢰에서 제도신뢰에 대한 연구까지 확대시켜나갔다(박찬웅, 1998; 이재혁, 2000; Zucker, 1986; Gambetta, 1988; Fukuyama, 1995; Putnam, 1993; Newton and Norris, 1999; Putnam et al., 2000).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 특히 정부에 대한 지지, 정부신뢰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신뢰가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정부신뢰의 감소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정부가 정치, 사회, 경제 등 사회전반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믿지 못하고 순응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집행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인의 안정, 경제의 안정, 나아가 국가의 발전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Miller, 1974; Fukuyama, 1995; Cumming and Bromiley, 1995; Nye et al., 1997; Chanley, 2000). 반면 정부신뢰 감소를 현대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현상으로 보는 긍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민주주의’ 원리는 신뢰하지만 시민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현실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갖는 비판적 시민(critical citizen)이 성장했기 때문에 정치신뢰 및 정부신뢰의 감소 현상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신뢰의 감소 현상으로 신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는 정부신뢰의 근원, 결과, 유지 방안까지 확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정부신뢰의 근원에 대한 연구는 정부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정부신뢰 속에 배태된 국가의 사회적·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수준의 자료를 통해 한 국가나 소수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신뢰의 근원과 결과에 초점을 두고 개인단위에서 이루어져왔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배병룡·이시원, 1988; 박종민, 1991; 박천오, 1999; 김현욱, 2001; 이종수, 2001; 오경민·박홍식, 2002; 장수찬, 2002; 박통희, 2003;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그리고 다수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통합 자료를 사용해 국가 내 개인의 인식에 대한 문제는 소홀히 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정부성과가 아닌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에 초점을 둔 사회문화론적 설명이 시도되어야 하며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 정부신

뢰의 수준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독특한 맥락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며 좀 더 종합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인수준 자료와 사회적·제도적 맥락을 반영하는 국가수준 자료를 함께 분석 가능한 다수준 분석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아시아 시민들의 가치관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아시아 시민들의 독특한 가치관과 성향을 탐색할 수 있다.

## II. 정부신뢰와 사회문화적 설명

### 1. 정부신뢰

신뢰란 사전적 정의로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다”(국립국어원, 2009), “Trust is to believe that they are honest and sincere and will not deliberately do anything to harm you”(Collins English Dictionary, 2009). Barber(1983)는 ‘신뢰는 근본적으로 행위자들 상호간에 가지는 기대로부터 출발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행위자들 간에 기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신뢰조차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Rousseau와 그의 동료들(1998)은 ‘신뢰를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기반으로 취약성을 받아들인 심리적인 상태’로 정의한다.

정부신뢰를 개념화하는데 있어 첫 번째는 신뢰하되 ‘무엇을’ 신뢰하는가, 신뢰 대상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다. 1970년대부터 정부를 개념화하는데 논쟁이 있어 왔다. 또한 정부개념의 혼란이 정부신뢰 측정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Miller(1974)는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부란 레짐(regime)으로 정치체제와 정치제도 전반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Citrin(1974)은 시민들은 정치체제와 집권당국을 구분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부는 집권당국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Norris(1999) 역시 정부신뢰(trust in government)의 대상인 ‘정부’는 다차원적이라고 한다.<sup>1)</sup> 이는 ‘정부’라는 용어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첫째, ‘통치’라는 과정을 의미하며 ‘권력행사’를 지칭하며 둘째, 국가 내 권한을 지닌 사람들(집권당국)을 의미하며 중앙정부(행정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가장 광범위하게 국가 전체를 구성하고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뜻하며 보통 삼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시민들이 신뢰하는 대상으로 대통령과 정부관료 또는 그들이 구성

1) 정부신뢰는 통치제도로서의 정부에 대한 평가와 당국으로서의 정부에 대한 평가를 모두 반영할 수 있다(Norris, 1999).

하는 중앙정부로 인식할 수도 있으며 또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같은 정치제도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즉 시민이 인식하는 ‘정부’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며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이에 기존 정부신뢰연구는 Easton(1965)의 ‘정치적 지지’의 구분을 사용하여 신뢰 대상을 분류하였다. 첫째, 집권당국(authorities)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지지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평가정향을 나타낸다(정치인에 대한 신뢰, 정당에 대한 일체성,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 등). 둘째, 레짐(regime)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지지는 정부제도와 성과에 관한 것으로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만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지지는 사회와 국가전체를 지지하는 것이다(국가에 대한 자부심, 국가에 대한 일체감, 국가를 위해 싸울 의지). 여기서 가장 포괄적인 대상은 정치공동체, 그 다음은 레짐, 그리고 마지막 집권당국이 된다.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정치학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초기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는 정부신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초점을 두고 논쟁하였다. 하나는 정부신뢰는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의 만족으로 정부신뢰의 감소는 제도에 대한 불만족을 반영한다는 주장(Miller, 1974a)과 다른 하나는 정부신뢰는 단순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지도자에 대한 만족으로 정부신뢰의 감소는 집권당국에 대한 불만족을 반영한다는 주장(Citrin, 1974)이다.

본 연구에서 정부신뢰의 대상은 레짐으로 간주하며 구체적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정부제도를 대상으로 한다.<sup>2)</sup> 또한 시민들이 신뢰의 대상인 ‘정부’에 대한 불명확 인지로 인해 다양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부신뢰의 대상은 레짐으로 하나는 중앙정부(행정부), 다른 하나는 국가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제도(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분한다.

두 번째 작업은 ‘신뢰대상의 어떤 면을 신뢰하는가’, 신뢰의 내용에 구체화하는 것이다. Mayer, Davis, Schoorman(1995)은 신뢰성의 구성요소로 능력(ability), 배려(benevolence), 청렴성(integrity)을 제시하였다. 기존 정부신뢰의 연구에서도 신뢰에 대한 내용,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신뢰성)로 정부의 수행능력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시원, 1993; 박찬웅, 1998; 박종민·김왕식, 2002; 박희봉 외, 2003; 한준, 2003; Baber, 1983; Granovetter, 1985; Levi, 1997; Evans, 1996; Newton, 1999; Maloney, William, Smith and Stoker, 2000; Stolle, 2001; Rothstein, 2000; Rothstein and Stolle, 2003; Uslander, 2002; Hooghe and Stolle, 200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신뢰를 ‘정부 기능이나 역할이 국민들의 규범적 기대에 따라 수행되고

2) 레짐은 레짐의 정치제도(Gamson, 1968) 또는 레짐제도(Norris, 1999)에 해당한다.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한다.

## 2. 사회문화론

많은 학자들은 신뢰의 감소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신뢰 개념 정의와 함께 정부신뢰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Lipset and Schneider, 1978; Miller and Borelli, 1991; Craig, 1993). 기존 연구들은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정부성과에 초점을 두는 제도성과론(Institutional Performance Theory)으로 설명하여 왔으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한정시켜 온 성과연구가 대다수였다(Miller, 1983; Citrin and Green, 1986; Hetherington, 1998; Gershtenson and Plane, 2007). 그러나 개인적 특성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특성은 시민들이 정부를 평가하고 신뢰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차별을 받은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는지, 또는 경제적으로 실패했는지, 문화나 종교,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특성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뢰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정부신뢰의 원인을 설명하는 또 다른 축은 사회문화론(Socio-Cultural Theory)으로 시민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속에서 사회화되고 내재화된 가치를 형성시키며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다(박천오, 1999; 박희봉 외, 2003; Mishler and Rose, 1997, 2001; Dalton, 2000; Zmerli and Newton, 2008; Huang et al., 2008). 제도에 대한 신뢰는 대인간 상호신뢰가 확장된 것이며 삶의 초기에 형성됨을 의미한다(Almond and Verba, 1963; Inglehart, 1993; Putnam, 1993; Foley and Edward, 1999; Jackman and Miller, 1995; Levi, 1996; Mishler and Rose, 2001, 2005).

사회문화론은 정부의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뢰자를 중심으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시각으로 신뢰를 인간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며 그 신뢰는 세대 간에 전해지는 것이고 사회 내에 깊게 배태된 것으로 본다. 정부신뢰를 포함한 시민의 정치적 태도와 행위들은 결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규범에 근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내재화된 것으로 개인의 초기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개인의 가치와 시민문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사회문화론은 정부신뢰의 형성과정에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다(Mansbridge, 1997).<sup>3)</sup> 이러한 사회문화론은 정치제도 밖의 외재적 요인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외재적 요인을 중시하는 시각이다(Fukuyama, 1995).

3) Mansbridge(1997)는 정부에 대한 신뢰저하 원인을 개인의 사회화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가설을 내세워 사회자본의 감소가 중요 원인임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사회문화론은 초기의 사회화이론이 발전한 것이다. 초기의 사회화이론은 인간의 인격형성에 정립된 일정한 가치 우선순위는 성년기에 가서도 상당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유년기에나 청소년기에 습득한 기본적인 성격 구조는 청년이나 장년이 되어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들은 성년기에 들어 성격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니며 다만 초기에 형성된 인격 구조가 더 장기간 지속되며 중요하다는 것이다(어수영, 1999; Jennings and Niemi, 1981; Jennings and Markus, 1984). 가치관의 형성은 개인의 타고난 인성(personality)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가 속한 문화, 환경, 교육, 소속기관의 철학, 인간관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Kluckhohn and Strodtbeck, 1961).

Converse(1964)는 개인의 가치 또는 이념을 정부에 대한 태도 및 정치행위의 주요 동인으로 설명하였다.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적 요인들은 많지만, 그 중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가치이다(Katz and Kahn, 1978; Chatman, 1989). 개인은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내적 불만족이나 자기비하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만약 특정 상황이나 환경이 자신의 가치와 괴리된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가치의 괴리로부터 오는 심리적 불편함을 겪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된다(Dawes and Kagan, 1988; Chatman, 1989).

또한 개인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인성 특성(personality traits)에 따라 개인의 태도와 행위가 달라진다(Staw and Ross, 1985).<sup>4)</sup> 오랜 기간 동안 다소 일관되고 안정된 수준으로 개인을 특성화하기 때문에 상황을 초월하여 개인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 조직행동론은 개인의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성 특성 중 정서적 성향(affective disposition)을 제시하였다(Staw, Bell and Clausen, 1986; Levin and Stokes, 1989; Judge, Bono and Locke, 1998).<sup>5)</sup> 정서적 성향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타고난 정서적 성질로서 인성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정의하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Watson and Clark, 1984; Meyer and Shack, 1989). 긍정적인 정서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 일반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전반적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 정서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 일반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Watson and Clark, 1984).<sup>6)</sup> 정서

4) 이러한 시각을 성향적 접근법(dispositional approach)이라 하며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의 측정과 전제와 관련된다(Staw and Ross, 1985).

5) Staw 외(1986)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감성적 성향이 후에 성인이 되어서 갖게 되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적 성향이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개인이 특정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긍정적인 사고 혹은 부정적인 사고)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sup>7)</sup>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은 사물에 대한 기대와 기준을 형성하며 그것을 통해 사물에 대한 태도와 평가를 하게 된다.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을 통해 정부에 대한 기대와 기준을 형성하며 그러한 기대와 기준을 통해 정부를 신뢰할지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론의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전통주의와 후기물질주의, 개인주의, 주관적 안녕(wellbeing)을 구성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전통주의를 제시한다. 아시아의 전통주의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권위를 존중하는 가치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정부성도가 정부신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통주의도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Shi, 2001). 아시아의 전통주의는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민간 사회보다 국가가 우위에 있으며 그리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장수찬, 2005; Pye and Pye, 1985; Jacobs, 1985; Bell et al., 1995). 아시아의 전통주의로 개인보다는 국가를 강조하는 가치관의 모태인 가족주의와 전통적 권위에 대한 존중을 들 수 있다. 먼저 아시아 전통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제시된 가족주의란 일체의 가치가 가족 집단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가족 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노력(최재석, 1979)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가족주의를 가족과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전근대적인 가치체계로 정의하고 있다(한남재, 1990).

가족주의 전통은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주의는 일상적인 가족 내 의사소통의 양식과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정치적 제도 일반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을 중시하는 태도는 민족과 국가라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태도로 확장된다. 개인보다는 가족이, 가족보다는 민족이나 국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김원식, 2003).

6)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ve)은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와 자아개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부정적 정서가 강한 사람은 작업 상황 등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또한 매사에 불쾌감과 자기불만족과 같은 혐오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며 동일한 직무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정신 및 신체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ive)은 행복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열광적이고 적극적이며 민감하게 반응한다(김공수, 2001).

7) 조직행동론은 조직만족도를 확장시켜 국가라는 큰 조직의 정부에 대한 만족, 정부에 대한 신뢰로 본다.

아시아 전통주의의 핵심적 요소의 다른 하나로 전통적 권위 존중을 들 수 있다. 권위 존중은 전통적 가치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정치적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권위 존중은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원리를 상하 위계적인 서열관계로 보는 것으로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직장상사의 권위 등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중은 시대 변화와 무관한 원칙의 하나로서 서열에 대한 존중이고 전통적 가르침에 대해 존중하는 것으로 전통주의의 하나이다(황상민, 2003).

둘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후기물질주의를 제시한다. Inglehart(1990)는 개인의 가치를 기존의 보수-진보 정치이념으로 구분하는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이념 대신 물질주의와 후기물질주의 가치를 제기하였다. 시민의 가치관이 물질주의에서 후기물질주의로의 변화는 시민이 정부를 포함한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 시민이 된다는 의미이다(Inglehart, 1977, 1990, 1997). 후기물질주의는 기존의 질서 유지와 경제성장의 역할을 목표로 하는 정부보다는 참여와 복지 및 환경보전에 목표를 둔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높일 수 있다(주성수, 2003; Inglehart, 1999). 따라서 후기물질주의자들은 정치제도를 평가할 때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며 물질주의자들과 똑같은 정치체제 아래 살고 있지만 물질주의자들보다 정치제도에 대한 만족이 낮다(Inglehart, 1997). 또한 후기물질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중시하여 관용성과 참여의사는 높지만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낮다. 이는 시민이 정부를 포함한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더 비판적이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게 된다(어수영, 2004; Inglehart, 1977, 1990, 1997).

셋째, 평등주의를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한다. 평등주의는 평등, 자유주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으로 본다(Lipset and Schneider, 1978). 평등주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약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그러한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정부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마련이다(Lalonde, 1993; Lipset and Schneider, 1978). Douglas(1982)와 Wildavsky(1987)<sup>8)</sup>는 개인주의 문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평등주의 문화를

8) Douglas(1982)와 Wildavsky(1987)는 네 가지 문화 유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운명주의(fatalism)가치문화를 갖는 개인은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본인이 자신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운명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스스로 도울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위협하여 믿을 수 없다. 운명주의 문화에서는 공사영역을 구분하려 하지 않고 모두 불신한다. 스스로 고립된 이들은 자신 혹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시장이나 국가라는 제도보다는 개별적 차원에서 유력자와의 사적 관계에 기초한 후견적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둘째, 계층주의는 집단의식이 강해 구성원들은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집단의 보전과 번영을 중요시하며 계층적 질서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과 서로 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당연시한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권위관계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당연시 여겨 사람들이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계층질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를 중시하는 공동체나 개인들의 선택을 중시하는 시장보다는 국가를 통해 공동선의 구현을 옹호하기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 셋째,



설명하고 있다. 평등주의는 구성원들이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하고 집단의 성원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찾으며, 남을 배려하고 협동을 강조한다. 평등주의 문화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시장경제와 개인주의적 삶의 양식에 대해 부정적이다. 또한 평등주의 문화는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Wildavsky, 1987). 집단 목표를 위해 소득과 자원을 재분배하고 평등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 사회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이고 있다(Delhey and Newton, 2004).<sup>9)</sup> 따라서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시민들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을 선호하는 반면 평등주의 성향을 지닌 시민들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재분배를 목적으로 자원을 최대한 분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시민은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을 선호하지 않음으로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평등주의적 성향을 지닌 시민은 집단의 공통된 목표 실현과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마지막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주관적 안녕을 제시한다.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를 많이 또는 자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인의 배고픔과 삶에 대한 불만족은 의심과 불신을 낳는 반면 개인의 재정에 대한 만족과 자신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을 통해 발생하는 주관적 안녕은 타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킨다(Inglehart, 1999; Fukuyama, 1995). 주관적 안녕의 구성요소로서 삶의 만족과 긍정적 사고는<sup>10)</sup>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김명소 외, 2003).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는 자

개인주의는 구성원들이 대인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있음으로 개인주의자들은 관계를 규제하는 집단과 역할을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줄게 규정하면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선택을 최대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를 지향하는 개인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낮다. 마지막 평등주의는 구성원들이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하고 집단의 성원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찾는다. 구성원들의 우열을 가려 달리 대우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계층질서를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평등주의 문화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시장경제와 개인주의적 삶의 양식에 대해 부정적이고 집단의식이 강하지만 구성원 간의 계층질서는 거부한다. 평등주의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낮지만 정부가 집행하는 특정정책(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9) 개인이 집단에 종속되는 계층주의 문화와 평등주의 문화는 정부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계층주의와 평등주의가 강조하는 정부역할은 다른 맥락이다. 계층주의는 권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평등주의는 권위를 중시하지 않으면서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이다(Wildavsky, 1985).

10) Goodhart(1985)는 긍정적 사고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명백한 사건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하였다. 김현정 외(2006)는 긍정적 사고는 자신과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만족스럽게 수용하며, 부정적인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서도 좋은 면을 발견하여 성장의 기회로 삼고

기 자신과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좋은 자질, 특성, 바람직한 측면에 주목하여 긍정적인 인식성향과 그로 인해 발달하거나 강화되는 바람직한 개인특성으로 간주한다(현경자, 2009). 긍정적 심리상태가 태도 및 행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한다(Weinstein, 1989). 긍정적 정서를 지닌 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일이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긍정적 감정 상태를 느끼고, 전체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즐긴다. 행복감을 느끼고 주관적 안녕이 높다는 것은 개인에게 긍정적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좀 더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성향의 사람보다 자신의 조직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지각한다(Isen and Baron, 1992).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 긍정적 성향을 지닌 사람은 실제 정부성이나 정부의 도덕성에 상관없이 정부를 낙관적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정부신뢰간의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 정부신뢰의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정부신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 변수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정부신뢰는 시민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가정한다.

### 3. 국가의 제도적·구조적 맥락

Huckfeldt(1979)는 시민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은 개인적인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처해있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민이 접하는 정보는 환경(제도, 구조)에 의해 유형화되고,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있는 개인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접하면서 자신들의 태도를 형성하고 구조화한다는 것이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이러한 환경 중 경제 상황, 사회상황, 정치상황, 시민문화는 국가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요소다. 여기서 시민의 정부신뢰라는 태도는 국가의 특성인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특성 중 현재의 경제상황과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가의 시민문화에 초점을 둘 것이다.

국가의 맥락적 특성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경제상황, 경제 성장 속도 이다. 많은 연구에서 국가의 경제상황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Friedman, 1973; Lipset and Schneider, 1983; Miller, 1983; Citrin and Green, 1986; Lawrence, 1997; Hetherington, 1998; Gershtenson and Plane, 2007). Weil(1989)와 Monroe(1998)의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의 GDP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이 정부신뢰에

---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inder와 Kiewiet(1981)에 따르면 국민은 개인의 가계재정 상태보다는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정부를 신뢰하거나 불신하게 된다. 정치신뢰는 자기본위(egoistic)의 가계재정상태보다 사회 지향적(sociotropic)인 경제상황(국가경제)과 더 관련됨을 보여준다.<sup>11)</sup> 시민들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침체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으며, 경제상황에 따라 시민들은 정부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특히 실제 경제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정부의 경제성과 평가보단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소득재분배 구조적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한계에 이르게 된다. 이에 시민은 경제 불황과 침체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강조되는 또 하나의 국가특성으로 시민문화(civic culture)를 들 수 있다(Almond, 1989). Fukuyama(1995)와 Inglehart(1997)는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기본원칙으로 사회신뢰를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자본론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시민문화를 대표하는 사회자본은 시민들의 공적 이슈에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 정부정책에 대한 개입을 촉진시키므로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제도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킨다(장수찬, 2002; Lipset and Schneider, 1983; Boix and Posner, 1988). 수평적이고 안정된 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면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신뢰가 형성되며, 이러한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사회신뢰의 증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촉진시키는 파급효과가 발생한다(Granovetter, 1985; Stolle, 2000).<sup>12)</sup>

Newton(2008)은 정치신뢰를 종교, 소득, 소득불평등, 사회신뢰, 안정적인 민주주의, 경제적

11)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신뢰가 달라진다는 의미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당국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경향이 크다. Kinder와 Kiewiet(1981)는 개인적 이익이 아닌 순수하게 국가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시민은 결국에는 현 집권당국이 시민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부능력의 지표로 국가 경제상황을 간주하기 때문에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아닌 당국에 대한 신뢰로 볼 가능성이 있다.

12) 이외에도 국가의 상황을 나타내는 환경적 요인들은 많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민주화의 정도를 들 수 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제3의 물결(신생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된다.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통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기보다 오히려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통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만이고조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가 오래되거나 또는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거나 민주주의 경험기간과는 상관없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정부신뢰는 증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통치체제가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된 신생민주주의 국가(New Democracy)에서도 예외 없이 정부신뢰는 지난 20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Catterberg and Moreno, 2006). 정부신뢰 증가는 민주주의 경험과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민주화라는 국가적 특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배제하기로 한다.

발전, 부패의 척결 등과 같은 도덕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통합된 복잡한 신드롬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들은 상호의존적으로 관련되어 시민의 태도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신뢰나 정부신뢰가 개인의 정치적 태도,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만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시민사회의 특성이 어우러져 광범위한 신드롬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개인적 요인과 함께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시민의 태도를 연구함에 있어 제도적·구조적 맥락의 국가 변수가 함께 사용되는 국가 간 비교분석과 다수준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연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가적 맥락으로서 객관적인 경제적 상황과 시민문화를 통제할 상태에서 사회문화적 요인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Ⅲ. 연구설계

#### 1. 연구대상과 분석 자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아시아에 속한 민주주의 국가로 지역적으로 밀접한 국가의 시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정부신뢰의 근원을 보다 명확히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up>13)</sup> 연구 대상은 동북아시아지역 4개국(대만, 홍콩,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지역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중앙아시아지역 2개국(키르기스스탄, 몽골), 남아시아지역 4개국(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네팔)으로 15개국이다.

분석에서 사용된 개인수준의 자료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된 아시아바로미터(AsiaBarometer Survey)를 사용하며 15개국 총 응답자는 8,668명, 남성 50.9%, 여성 49.1%이고, 20대 27.4%, 30대 27.5%, 40대 23.0%, 50대 14.4%, 60대 7.7%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수준의 자료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정부신뢰가 시민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은 물론이고 국가수준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국가 내 시민들은 국가에 대한 많은 정보와 경험, 나아가 문화를 공유하고 시민들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태도나 행동을 형성하며 다른 국가의 시민 태도와 행동과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따라서 위계적 속성을 갖는 국가수준과 개인수준의 자료를 동시에 분석하며 국가수준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다수준

13) 연구 대상은 AsiaBarometer Survey 2005년부터 2008년도 조사를 실시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는 비아시아지역으로 제외되고 부탄과 파키스탄은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민주주의체제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된다.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사용한다.

## 2. 측정

### 1) 종속변수: 정부신뢰

종속변수로서 정부신뢰는 시민이 인식하는 ‘정부’가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첫째, 중앙정부(행정부)를 정부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아시아바로미터의 국가 제도에 대한 신뢰 문항<sup>14)</sup> 중 “귀하는 중앙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함(3점), 약간 신뢰함(2점), 별로 신뢰하지 않음(1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0점)”으로 측정한다. 이를 행정부신뢰로 개념화한다.

둘째, 정부제도를 정부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귀하는 중앙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귀하는 입법부(의회)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귀하는 사법체계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함(3점), 약간 신뢰함(2점), 별로 신뢰하지 않음(1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0점)” 세 문항을 사용하여 삼부(三府)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다.<sup>15)</sup>

### 2) 영향변수

본 연구는 국가와 개인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정부신뢰의 영향변수를 두 차원으로 구성한다. 하나는 개인수준의 정부신뢰 영향변수와 다른 하나는 국가수준의 정부신뢰 영향변수이다. 국가수준의 영향변수는 개인수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통제변수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수준의 통제변수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14) 기존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ANES)에 사용된 정부신뢰 측정문항은 ‘①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믿는가, ②정부는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가, ③정부는 세금을 얼마나 낭비하는가, ④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패하다고 생각하는가, ⑤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가’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 측정 문항은 기초적인 개념의 혼란과 함께 신뢰의 원인과 결과를 함께 혼란시킨다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Craig, 1993; Owen and Dennis, 2001). 반면 최근에는 World Values Surveys, Afro Barometer Survey, Eurobarometer Survey, AsiaBarometer Survey, Afrobarometer Survey 등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라는 단일 문항을 사용한다. 이러한 단일 문항은 응답자에게 신뢰의 대상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문항으로 신뢰라는 태도를 측정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수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자료의 한계 등의 이유로 단일 문항을 사용한다.

15) 각 문항의 Likert 척도 구성은 0-3점으로 4점 척도이다. 정부제도신뢰는 세 문항의 단순합을 점수로 한다.

## (1) 개인수준

개인수준 요인은 앞에서 제시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4개 요인과, 통제 변인으로서 경제적 성과를 구성한다.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근거로 제시된 사회문화론은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이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Rokeach, 1973),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사회문화의 가치관과 성향 요인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전통주의, 후기물질주의, 개인주의, 주관적 안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통주의는 가족주의와 전통적 권위 존중으로 측정한다. 가족주의는 개인보다는 가족이나 관계를 중시하는 개인의 가치이며, 권위에 대한 존중은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리를 상하 위계적인 서열관계를 존중하는 것으로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직장상사의 권위 등 서열에 대한 존중이고 전통적 가르침에 해당한다. 가족주의나 전통적 권위에 대한 존중 모두 권위관계를 중시한다. 전통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두 문항을 사용한다. “귀하가 자손이 없다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대를 잇기 위해서 입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를 지속시키기 위해 입양하겠다(2점), 상황에 따라 다르다(1점), 대를 잇기 위해 입양하는 것은 의미 없다(0점)” 문항과 “전통적 권위에 대해 더 존중해야 한다: 좋다(2점), 상관없다(1점), 나쁘다(0점)” 문항을 사용한다.<sup>16)</sup>

둘째, 후기물질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다음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회질서유지, 정부정책결정에 국민 참여 확대, 물가상승억제, 표현의 자유 보호” 문항을 사용한다. 사회질서 유지와 물가상승억제는 물질주의, 정부정책결정에 국민 참여 확대와 언론자유 확대는 후기물질주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sup>17)</sup>

셋째, 평등주의 성향을 가진 시민은 공통된 목표실현과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개인의 평등주의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두 문항을 사용한다. 첫째, “여성고용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촉진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가 발전하여 불평등한 것보다 경제가 침체되더라도 사람들이 평등한 것이 바람직하다” 두 문항의 응답은 “매우 동의(4점), 동의(3점), 동의도 동의하지 않음도 아님(2점), 동의하지 않음(1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0점)”이다.<sup>18)</sup>

16) 전통주의 지표는 두 문항을 0~10점, 총 11점 척도로 표준화한 후 두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7) 후기물질주의 문항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선택한 응답자들은 3점, 후기물질주의 문항을 첫 번째로, 물질주의 문항을 두 번째로 선택한 응답자들은 2점, 물질주의 문항을 첫 번째로, 후기물질주의 문항을 두 번째로 선택한 응답자들은 1점, 물질주의 문항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선택한 응답자들은 0점을 부여하였다. 4개 문항의 0~3점까지의 후기물질주의에 대한 점수를 0~10점, 총 11점 척도로 표준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은 후기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한다.

마지막은 주관적 안녕감으로 사람의 감정적 반응, 만족,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Veenhoven, 1991; Diener, 1994). 이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문항을 사용한다. 세 문항은 “귀하는 삶에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가계소득에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건강에 만족하십니까?”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서 “매우 만족(4점), 어느 정도 만족(3점), 만족도 불만족도 아님(2점), 어느 정도 불만족(1점), 매우 불만족(0점)”이다. 마지막 문항은 “귀하는 요즘 행복하십니까?”로 Likert 5점 척도 “매우 행복(4점), 어느 정도 행복(3점), 행복도 불행도 아님(2점), 어느 정도 불행(1점), 매우 불행(0점)”이다.<sup>19)</sup>

개인수준의 통제변수는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귀하는 정부가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처리함(3점), 상당한 정도 처리함(2점), 잘 처리하지 못함(1점), 매우 잘 처리하지 못함(0점)”의 4점 척도이다.<sup>20)</sup>

## (2) 국가수준

국가수준 영향변수이자 통제변수는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제 상황과 시민사회를 반영하는 사회신뢰이다. 첫째, 국가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성장률은 2004~2008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성장률의 평균값으로 한다.<sup>21)</sup> 둘째, 사회신뢰는 개인수준 분석에서 사용되는 ABS의 사회신뢰를 측정하는 문항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궁정적인 대답에 대한 국가 평균값을 사회신뢰로 한다.<sup>22)</sup>

18) 평등주의지표는 두 문항을 0~10점, 총 11점 척도로 표준화한 후 두 문항의 평균값을 지표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19) 주관적 안녕 지표는 4개의 문항의 총합으로 0점에서 16점으로 총 17점 척도이다.

20) 영향변수와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0-10점인 총 11점 척도로 표준화하였다.

21) 사용되는 자료들의 시간적 범위는 조사 시점에서 최근 국가상황이 응답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005~2008년 AsiaBarometer Survey을 기준으로 2004~2008년 평균값을 취하였다. 이는 서베이 조사에서 개인의 국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에 대한 경제상황은 어떠한가?”라는 문항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도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근 5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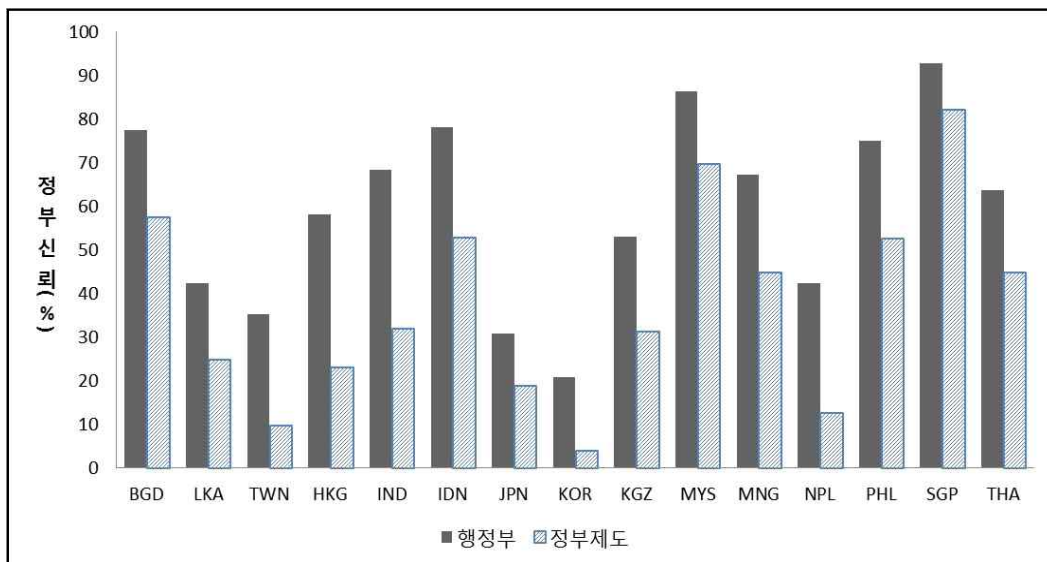
22) 사회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문항의 불균형성으로 앞부분은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를 측정하지만, 뒷부분은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이 아닌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뒷부분은 사회생활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인식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신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뢰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미가 응답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주변의 아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남들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

## IV. 분석결과

### 1. 기술통계

아시아 국가의 시민들은 행정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싱가포르의 응답자의 92.8%, 말레이시아는 86.3%, 인도네시아는 78.1%가 ‘중앙정부(행정부)를 신뢰한다 또는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하여 높은 수준의 행정부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국(20.9%), 일본(30.9%), 대만(35.3%)은 서구 국가의 정부신뢰의 흐름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의 행정부신뢰(정부신뢰 감소 현상)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제도(삼부)를 모두 신뢰하거나 매우 신뢰하는 응답자의 경우 한국은 4%, 대만은 9.7%로 매우 낮은 신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서구 국가의 정부신뢰 경향과는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림 1〉 국가별 정부신뢰 수준



를 묻는 질문은 보통 일반화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질문에서 사용된 “사람들”은 친구, 친척, 이웃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화된 혹은 숙지에 기반을 둔 신뢰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박종민, 배정현 2008)



<표 1>은 다수준 분석에서 사용되는 연구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시민들은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후기물질주의 보다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더 가까운 성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수준의 통제변수로 제시되는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설명변수에서 아시아 15개국 전체의 2004~2008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10.70%이며, 아시아 국가의 사회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29.87점).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사회신뢰가 낮고 사회자본이 풍부하지 않으며 시민사회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량

| 변수명    | N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    | 최대    |
|--------|-------|-------|-------|-------|-------|
| 정부신뢰   |       |       |       |       |       |
| 행정부    | 8,529 | 1.62  | 0.87  | 0     | 3     |
| 정부제도   | 8,529 | 4.86  | 2.07  | 0     | 9     |
| 개인수준   |       |       |       |       |       |
| 전통주의   | 8,529 | 5.58  | 2.98  | 0     | 10    |
| 후기물질주의 | 8,529 | 3.33  | 3.01  | 0     | 10    |
| 평등주의   | 8,529 | 6.97  | 1.82  | 0     | 10    |
| 주관적 안녕 | 8,529 | 11.18 | 2.82  | 0     | 16    |
| 경제성과   | 8,529 | 4.40  | 2.80  | 0     | 10    |
| 국가수준   |       |       |       |       |       |
| 경제성장률  | 15    | 10.70 | 5.78  | 1.43  | 21.65 |
| 사회신뢰   | 15    | 29.87 | 14.69 | 12.20 | 68.30 |

## 2. 다수준 분석

본 연구의 핵심 연구방법인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개인수준의 영향변수인 전통주의, 후기물질주의, 평등주의, 주관적 안녕과 개인수준의 통제변수인 정부의 경제적 성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포함한 각 국가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부에 대한 신뢰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변수로 전통주의(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후기물질주의(스리랑카, 싱가포르), 평등주의(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주관적 안녕(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나타났으며, 정부제도신뢰의 경우 전통주의(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후기물질주의(스리

랑카), 평등주의(스리랑카, 일본, 키르기스스탄), 주관적 안녕(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키르기스스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으로 나타났다<부록1>.

행정부신뢰와 정부제도신뢰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전통주의, 후기물질주의, 평등주의, 주관적 안녕을 개인수준 설명변수로, 경제성장률과 사회신뢰를 국가수준 설명변수와 함께 성, 연령, 교육, 소득수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경제적 성과 변수를 통제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행정부신뢰와 정부제도신뢰를 각 종속변수로 한 다수준 분석모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행정부신뢰의 경우, 기초모형[모형1]의 국가수준의 분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 상관계수(ICC)가 0.197로 정부신뢰의 전체분산의 19.7%를 국가 간 차이로 설명할 수 있으며 나머지 80.3%는 개인수준, 집단 내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부신뢰의 [모형2]를 통해 국가수준과 개인수준의 변수들이 행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부신뢰를 설명하는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과 관련된 변수로서는 전통주의, 후기물질주의, 주관적 안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주의에 대한 가치관으로 가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권위에 대한 존중감이 높을수록 행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물질주의 가치관보다 후기물질주의 가치관을 갖을수록 행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한 것으로 이러한 시민일수록 행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국가변수로서 사회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는 연령과 소득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계수의 방향을 고려하면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행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다수준 분석 결과

|                        | 행정부      |           | 정부제도     |           |
|------------------------|----------|-----------|----------|-----------|
|                        | 모형1      | 모형2       | 모형1      | 모형2       |
| 고정효과                   |          |           |          |           |
| 절편( $\gamma_{00}$ )    | 1.618*** | 1.621***  | 4.880*** | 4.886***  |
| 개인수준                   |          |           |          |           |
| 전통주의                   |          | 0.014***  |          | 0.039***  |
| 후기물질주의                 |          | -0.009**  |          | -0.014*   |
| 평등주의                   |          | 0.001     |          | -0.004    |
| 주관적 안녕                 |          | 0.034***  |          | 0.093***  |
| 통제변수                   |          |           |          |           |
| 성별                     |          | -0.006    |          | -0.030    |
| 연령                     |          | 0.002**   |          | 0.003     |
| 교육수준                   |          | -0.015    |          | -0.069*   |
| 소득수준                   |          | -0.043*** |          | -0.041    |
| 경제적 성과                 |          | 0.098***  |          | 0.223***  |
| 국가수준                   |          |           |          |           |
| 경제성장률                  |          | -0.015    |          | -0.043    |
| 사회신뢰                   |          | -0.010*   |          | -0.036**  |
| 임의효과                   |          |           |          |           |
| 국가수준 분산( $\tau_{00}$ ) | 0.152*** | 0.034***  | 1.162*** | 0.211***  |
| 개인수준 분산( $\sigma^2$ )  | 0.618*** | 0.548***  | 3.124*** | 2.742***  |
| 집단 내 상관(ICC)           | 0.197    | 0.058     | 0.271    | 0.071     |
| Deviance               |          | 19222.106 |          | 32932.689 |
| $R^2$ (국가수준)           |          | 0.775     |          | 0.818     |
| $R^2$ (개인수준)           |          | 0.113     |          | 0.122     |
| $R^2$                  |          | 0.243     |          | 0.311     |

주: \* p<.05, \*\* p<.01, \*\*\* p<.001

다음 정부제도(三府)신뢰의 경우, 기초모형[모형1]에서 국가수준의 분산값을 통해 국가들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모형2]의 분석결과표를 통해 개인변수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전통주의와 후기물질주의, 주관적 안녕감이 확인되었으며 국가변수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신뢰로 확인하였다. 이는 행정부신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신뢰가 낮은 국가의 시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정부신뢰(행정부신뢰, 정부제도신뢰)와 관련해서는 사회신뢰에 따른 국가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는 교육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제도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여 행정부신뢰와는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두 정부신뢰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시아 시민들은 평등주의적 가치관(6.97점)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평등주의적 가치관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변수로서 경제성장률 역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된 경제성장률에 따른 국가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 V. 분석결과의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아시아 15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 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 일본, 대만 이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국가와 달리 정부신뢰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싱가포르의 정치, 경제의 독특한 역사로 인해 정부신뢰가 가장 높았다. 세계적으로 정부신뢰의 흐름이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시민의 가치관과 성향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초점이었던 개인수준의 사회문화적 요인 중 전통주의와 후기물질주의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국가수준에서 모든 조건이 같다면 전통주의와 물질주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시민의 신뢰의 대상이 행정부이든 또는 정부제도(三府)이든 아시아의 정부신뢰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안녕감으로 확인하였다.

아시아 시민들이 가족과 가족관계를 중시할수록, 전통적 권위에 대한 존중감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보다는 가족이, 가족보다는 민족과 국가라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확장된 가치관이 정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중감 역시 정부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통적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 시각을 갖는 후기물질주의적 가치관 보다는 기존의 질서유지와 경제성장 등 물질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계경제와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사물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을수록 조직에 대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음

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평등주의적 가치관은 집단의 공통된 목표 실현과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정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시민들은 개인주의보다는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평등주의 가치관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평등주의 가치가 적극적 배분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에는 협력하려는 태도와 시민과 정부 간의 계층적 관계를 부정하는 태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가의 맥락적 특성을 나타내며 통제변수로서 제시되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사회신뢰에 대한 분석 결과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신뢰만이 국가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변수의 경우에는 예상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가맥락에서는 예상과 달리 사회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간의 관계는 서구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한정된 연구대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Putnam, 1993, Newton, 2006, Evans & Letki, 2006).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자본과 정부신뢰간의 관계, 즉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아시아국가의 사회자본과 사회신뢰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장수찬(2002)의 논문에서도 서구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단체참여와 사회신뢰, 정부신뢰간의 순순환의 사이클(virtuous circle)이 한국사회에서는 악순환의 사이클로 나타남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사회신뢰와 단체참여 모두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려면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유재원 2000; 장수찬 2002).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신생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단체참여, 정치참여나 높을수록, 그리고 타인에 대한 빈번한 접촉으로 생기는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단체참여나 정치참여, 빈번한 타인과의 접촉은 정부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기회가 이전 권위주의 체제나 초기 민주주의체제 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신뢰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의 대상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일찍 정착된 사회로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문화와 역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유교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한 국가가 대부분으로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가 혼합되어 발생한 것일 추측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는 유교문화권이며 공동체 집단주의, 교육의 강조, 국가의 우위, 위계적 권위주의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 타인에 대한 신뢰인 사회신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 계급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문항에 대한 문제점으로 사회신뢰의 측정문항에서 사용된 “대부분 사람들”은 친구, 친척, 이웃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화된 혹은 숙지에 기반을 둔 신뢰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수는 알고 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가 양 극단에 있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일반화된 신뢰에 가깝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은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박종민, 배정현 2008). 기존 연구는 빈번한 낯선 타인과의 접촉과 상호작용으로 사회신뢰가 쌓이며 그 사회신뢰가 외부로 확대되고 일반화되어 정부신뢰까지 영향을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신뢰의 명확한 측정을 바탕으로 나타난 주장이라 볼 수 있다. 즉 문항의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AsiaBarometer survey 중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 문항의 국가 평균값을 사회신뢰를 측정하는 국가변수로 추출한, 즉 개인수준의 조사문항을 집합적 수준으로 연구한 것이므로 데이터의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였기에 다른 결과나 나타난 가능성이 있다. 사회자본과 그것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의 사회신뢰, 단체참여와의 관계, 그리고 정부신뢰를 잇는 인과관계를 보다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신뢰와 관련된 사회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신뢰와 관련하여 국가의 경제성장률이라는 객관적 경제상황에 대한 국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직접적으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경제변동을 반영하는 경제성장률은 시민 개인에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신뢰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타당한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 포함된 개인수준 통제변수인 정부의 경제적 성과(경제와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정부신뢰에 관한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경제전반에 대한 성과가 아시아 시민에게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객관적인 경제상황과 주관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신뢰에서는 연령과 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부제도신뢰에서는 교육수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삼부(三府)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적 성과

이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회문화론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른 정부신뢰를 탐색하였다. 기존의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정부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어 왔으며, 개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포괄한 연구들도 소수 진행되어 왔으나 부수적인 요인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정부신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통제한 후 개인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정부신뢰간의 관계를 살펴보며 신뢰자를 중심으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정부신뢰와 관련한 국가효과를 새로운 통계방법인 다수준 분석을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환경적 요인은 개인의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Huckfeldt (1979)의 이론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차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상 연구대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한적인 연구 대상으로 인해 서구의 기존 연구와는 다른 높은 수준의 정부신뢰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정부신뢰연구의 연구대상이었던 서구 선진 국가와의 심층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가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포함된 사회신뢰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실제 개인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국가효과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자본과 그것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의 사회신뢰, 단체참여와의 관계, 그리고 정부신뢰를 잇는 인과관계를 보다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신뢰와 관련된 사회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화와 역사에 대한 병행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상진. (1995). “다층통계모형의 방법론적 특성과 활용방법”. 『교육평가연구』, 8(2), 63-94.
- 김공수. (2001). “긍정적 정서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3(2), 25-57.
- 김원식. (2003). “동아시아의 가족주의 전통과 민주주의”. 『사회와 철학』, (5), 129-154.
- 박병진. (2004).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 근대적 요인과 탈근대적 요인”. 『시민사회와 NGO』, 2(2), 87-119.
- 박종민. (1991). “정책산출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5(1), 291-305.

- 박종민·김왕식. (2006).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170.
- 박종민·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3.
- 박찬용. (1998).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207.
- 박천오. (1999).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불신 원인과의 처방에 관한 이론적 고찰”, 「행정논총」, 37(2), 47-71.
- 박통희. (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3(2), 1-17.
-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박희봉·이희창 (2005). “개인의 가치가 정부신뢰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비교”. 「한국행정연구」, 14(4), 3-38.
- 배병룡·이시원. (1988). “정부불신의 원인과 결과”. 「한국행정학보」, 22(2), 393-427.
- 어수영. (1999). “한국인의 가치변화와 지속성 그리고 민주화”. 「한국정치학회보」, 33(3), 111-131.
- 오경민·박홍식. (2002). “정부신뢰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113-135.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23-43.
- 이시원. (1994). “경제적 상황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3(1), 61-84.
- 이재혁. (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 40(5), 61-98.
- 이종수. (2001).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32, 67-86.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한국정치학회보」, 36(1), 87-112.
- 유경준. (2005). “동아시아 사회의 유교주의와 탈 근대화”. 「사회과학연구」, (6), 3-32.
- 주성수. (2003). “정부의 신뢰위기와 NGO와의 파트너십 대안”. 「한국행정연구」, 12(2).
- 최재석. (1979).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 한남재. (1990). 「현대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한준. (2003). “민주주의, 제도와 신뢰”. 「신뢰연구」, 13(2), 19-36.
- 현경자. (2009). “역경 극복을 돕는 성인 한국인의 긍정성 탐색: 긍정적 태도 척도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3-42.
- 황상민, 양진영, 강영주. (2003). “세대집단의 가치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17-33.



*Five Nations*. Sage Publications, Inc.

-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ell, D., Brown, D., Jayasuriya, K., & Jones, D. M. (1995). *Towards illiberal democracy in Pacific Asia*. Macmillan Press.
- Boix, C., & Posner, D. N.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4), 686-693.
- Catterberg, G., & Moreno, A. (2006). The Individual Bases of Political Trust: Trends in New and Established Democra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1), 31-48.
- Chanley, V. A. (2002). Trust in Government in the Aftermath of 9/11: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Political Psychology*, 23(3), 469-483.
- Chatman, J. A. (1989). Improving interactional organizational research: A model of person organization fit. Special Issue: Theory development forum.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 333-349.
- Citrin, J., & Green, D. P. (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4), 431-453.
- Converse, 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 Apter(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NY: Free Press
- Cummings, L. L., & Bromiley, P. (1995).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 OTI. In R. Kramer & T. Tyler (Eds.), *Trust in organiz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Craig, S. C. (1993). *The malevolent leaders*. Boulder Westview Press.
- Dalton, R. J. (2000). Citizen Attitudes and Political Behavior.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6-7), 912-940.
- Delhey, J., & Newton, K. (2005). Predicting Cross-National Levels of Social Trust: Global Pattern or Nordic Exceptionalism?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4), 311-327.
- Douglas, M. (1982). *In the active voice*. London: Routledge & K. Paul.
- Easton, 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vans, G., & Letki, N. (2006).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disaffection in the new post-communist democracies. In M. Torcal & J. R. Montero (Eds.), *Political Disaffec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Social Capital, Institutions and Politics*. London; New York, Routledge.
- Evans, P. (1996).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24, 1119-1132.
- Foley, M. W., & Edwards, B. (1999). Is it time to disinvest in social capital? *Journal of Public Policy*, 141-173.

- Friedman, I. S. (1973). *Inflation, a world-wide disaster*. Boston: Houghton Mifflin.
- Fukuyama, F. (1995). *Trust*. New York: Free Press.
- Gambetta, D. (Ed.). (1990).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Blackwell Publishers
- Gamson, W. A. (1968). *Power and Discontent*. Dorsey Press.
- Gershtenson, J., & Plane, D. L. (2007). *Trust in Government*: ANES.
- Goodhart, D. E. (1985). Some psychological effects associated with positive and negative thinking about stressful event outcomes: Was Pollyanna ri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216.
- Granovetter, M.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
- Hardin, R. (1999). Do you want trust in government??. In M.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sage press.
-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offerbert, R. I., & Klingemann, H. D. (1999). Remembering the bad old days: Human rights, economic conditions, and democratic performance in transitional regim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6(2), 155-174.
- Hooghe, M., & Stolle, D. (2003).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Ethnic Diversity and Generalized Trust in Europe: A Cross-National Multilevel Stud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2), 198-223.
- Hox, J. J. (1998). Multilevel modeling : When and why. igitur-archive. library.uu.nl.
- \_\_\_\_\_. (2010). *Multilevel analysi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second ed.). New York: Routledge.
- Huckfeldt, R. R. (1979).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Neighborhood Social Contex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3), 579-592.
- Huang, M. H., Chang, Y. T., & Chu, Y. H. (2008). Identifying sources of democratic legitimacy: A multilevel analysis. *Electoral Studies*, 27(1), 45-62.
- Huntington, S. P. (1991). Democracy's Third Wave. *Journal of Democracy*, 2(2), 12-34.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In M.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 Isen, A. M., & Baron, R. A. (1991). Positive affect as a factor in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3, 1-53.

- Jackman, R. W., & Miller, R. A. (1995). Voter Turnout in the Industrial Democracies during the 1980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7(4), 467-492.
- Jennings, M. K., & Niemi, R. G. (1968). The Transmission of Political Values from Parent to Chil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1), 169-184.
- Jennings, M. K., & Markus, G. B. (1984). Partisan orientations over the long haul: Results from the three-wave political socialization panel stud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4), 1000-1018.
- Jacobs, N. (1985). *The Korean road to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Kluckhohn, F. R., & Strodtbeck, F. L. (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Row, Peterson*.
- Lalonde, C. (1993). *Egalitarianism Versus Individualism Conflict Theory: Explaining People's Support for Employment Equity Policies*. Carleton University.
- Lawrence, R. Z. (1997). Is it really the Economy, Stupid? In J. S. Nye, P. D. Z. Jr. & D. C. King (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evi, M. (1996). Social and Unsocial Capital: A Review Essay of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Politics Society*, 24(1), 45-55.
- Levi, M. (1997). *Consent, dissent, and patriot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 I., & Stokes, J. P. (1989). Dispositional approach to job satisfaction: Role of negative affectiv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5), 752.
- Lipset, S. M., & Schneider, W. (1983). *The confidence gap: Business, labor, and government in the public mind*. Free Press.
- Maloney, W., Smith, G., & Stoker, G. (2000). Social Capital and Urban Governance: Adding a More Contextualized 'Top-down' Perspective. *Political Studies*, 48(4), 802-820.
- Mansbridge, J. J. (1990). *Beyond self-intere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eyer, G. J., & Shack, J. R. (1989). Structural convergence of mood and personality: Evidence for old and new dire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91-706.
-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 Miller, A. H., & Borrelli, S. A. (1991). Confidence in Government During the 1980s. *American Politics Research*, 19(2), 147-173.
- Mishler, W., & Rose, R. (1997). Trust, Distrust and Skepticism: Popular Evaluations of Civil and Political Institutions in Post-Communist Societies. *The Journal of Politics*, 59(2), 418-451.

- \_\_\_\_\_. (2001).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 30-62.
- \_\_\_\_\_. (2005). What Ar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rust?: A Test of Cultural and Institutional Theories in Russi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8(9), 1050-1078.
- Newton, K.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P.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6). Institutional confidence and social trust: aggregate and individual relations. In M. Torcal & J. R. Montero (Eds.), *Political Disaffec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Social Capital, Institutions and Politics*. London;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8). Trust and Politics. In D. Castiglione, J. W. v. Deth & G. Wolleb (Eds.),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ewton, K., & Norris, P. (2000).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rmance? In S. J. Pharr & R. D.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orris, P. (Ed.).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ye, J. S., Zelikow, P. D., & King, D. C. (Eds.).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Pharr, S. J., & Russell, J. D. (2000). Introduction: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In S. J. Pharr & R. D.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ye, L. W., & Pye, M. W. (1985). *Asian power and politics: The cultural dimensions of authority*. Harvard Univ Press.
- Rothstein, B. (2000). Trust, Social Dilemmas and Collective Memorie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2(4), 477-501.
- Rothstein, B., & Stolle, D. (2003). Introduction: Social Capital in Scandinavia.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6(1), 1-26.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 Shi, T. (2001). Cultural Values and Political Trust: A Comparis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aiwan. *Comparative Politics*, 33(4), 401-419.

- Staw, B. M., Bell, N. E., & Clausen, J. A. (1986). The Dispositional Approach To Job Attitudes: A Lifetime Longitudinal Tes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1(1), 56-77.
- Stolle, D. (2001). Clubs and congregations: the benefits of joining an association. In K. Cook (ed.), *Trust in Society*, NY: Russell Sage Foundation.
- Uslaner, E. M. (2000). Producing and consuming trus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5, 569-590
- \_\_\_\_\_.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ren, M. E. (Ed.). (1999).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3), 465-490.
- Weatherford, M. S. (1987). How Does Government Performance Influence Political Support? *Political Behavior*, 9(1), 5-28.
- Weinstein, C. S. (1989). Teacher education students' preconceptions of teaching.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0(2), 53-60.
- Weil, F. D. (1989).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Legitimation in Western Democracies: A Consolidated Model Tested with Time-Series Data in Six Countries Since World War II.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5), 682-706.
- Wildavsky, A. (1985). A cultural theory of expenditure growth and (Un)balanced budge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8(3), 349-357.
- \_\_\_\_\_. (1987). Choosing Preferences by Constructing Institutions: A Cultural Theory of Preference Form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1), 4-21.
- Zucker, L. G.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53-111.

AsiaBarometer Survey (<https://www.asiabarometer.org/>)

Collins English Dictionary

The Worldwide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 부 록 1 >

|        | BGD     |         | LKA     |         | TWN     |         | HKG     |        | IND    |         | IDN     |         | JPN     |         | KOR     |         | KZG     |         | MYS     |         | MNG     |         | NPL    |         | PHL     |         | SGP     |         | THA     |       |    |
|--------|---------|---------|---------|---------|---------|---------|---------|--------|--------|---------|---------|---------|---------|---------|---------|---------|---------|---------|---------|---------|---------|---------|--------|---------|---------|---------|---------|---------|---------|-------|----|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       |    |
| 진통주의   | ns      | .088*   | ns      | .150*** | .231*** | .270*** | ns      | -.091*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 후기불평주의 | ns      | -.112** | -.114**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 평등주의   | ns      | ns      | ns      | ns      | .075*   | ns      | ns      | .090*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 주관적 인성 | ns      | ns      | -.084*  | ns      | .133*** | ns      | ns      | .110** | .136** | .166*** | .130**  | ns      | .098*   | ns      | .223*** | .203*** | ns      | .149*   | ns      | ns      | .204*** | .116**  | .088*  | ns      | .205*** | .228*** | .112*** | .113*** | ns      | ns    |    |
| 통제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별     | -.19*** | -.028*  | -.101** | -.091*  | ns      | ns      | .144*** | .114**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 연령     | ns      | ns      | ns      | ns      | ns      | ns      | .087*   | ns     | ns     | .077*   | ns      | ns      | ns      | .107*   | .111**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 교육수준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097*   | .125**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108**  | .085* |    |
| 소득수준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 경제적 성과 | .385*** | .371*** | .505*** | .463*** | .323*** | .291*** | .144*** | .103** | .091*  | .178*** | .159*** | .200*** | .406*** | .408*** | .348*** | .398*** | .437*** | .340*** | .374*** | .420*** | .438*** | .321*** | .161** | .327*** | .307*** | .290*** | .322*** | .387*** | .385*** | ns    |    |

주: 기재된 수치는 OLS 표준화된 회귀계수.  
\*p<.05, \*\*\*p<.001, \*\*\*\*p<.0001

## ABSTRACT

### Trust in Government according to Citizen's Values and Characteristics: A Focus on Asian Countries

Jung-Hyun Bae

This study explores and identifies important sources of trust in government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individual values or characteristics in Asian countries. Of the individual socio-cultural variables, traditionalism, post-materialism, and subjective well-being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rust in governmen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sia-Barometer Survey data. The variables of traditionalism, post-materialistic values, and subjective well-being reflect individual values and characteristics and they influence the expectations of government and the standards for evaluating government. Individual citizens pursuing more traditionalism and satisfying more subjective well-being are more likely to have more trust in government. Individuals pursuing more post-materialistic values are less likely to trust in government. The research findings also show that higher social trust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Keywords: trust in government, socio-cultural theory, value, multi-level analysis, Asian nation】